

용인

여 백

I. 기록이 전하는 유적

1. 굴암사(窟巖寺)

[梵字攷 龍仁 寺刹 窟巖寺]

- 在窟巖山
- 굴암산에 있다.

2. 극락사(極樂寺)

[太古寺法 極樂寺]

- 在龍仁郡遠三面九峰山大本山龍珠寺末寺
- 용인군 원삼면 구봉산에 있다. 대본산 용주사의 말사이다.

3. 금수암(金水庵)

[寺塔古蹟攷 金水庵]

- 在龍仁郡邑三面中里
- 용인군 읍삼면 중리에 있다.

■ 유적·유물

- 금수암지 / 용인시 구성면 중리 / 사지 / 초석 몇 개와 탑재가 남아 있던 암자로 추정.
- 금수암지 석탑재(石塔材) / 용인시 포곡면 금어리 봉불사 경내 / 탑 / 당초 금수암지에 있던 것으로 봉불사(奉佛寺) 창건 주지인 이묘인 씨가 현 위치로 옮긴 것이라 전함. 기단부와 옥개석, 옥신 등은 결실되고 2개의 옥개석과 옥신만 남아 있음.

4. 문수사(文殊寺)

[寺塔古蹟攷 文殊寺]

- 在龍仁郡遠三面東村里礎數個殘存
- 용인군 원삼면 동촌리에 있다. 초석 여러 개가 남아 있다.

■ 유적·유물

- 문수사지 / 용인시 원삼면 문촌리 산25 / 사지 / 문수산(文殊山) 정상 가까이에 있으며 우물, 건물지로 추정되는 터, 마애보살상 2구가 있음.
- 문수산 마애보살상(磨崖菩薩像) / 유형 120 / 고려 / 불상 / 마애보살상 2구. 높이 270cm. 3.5m되는 두 개의 암벽에 각 1구씩 새김. 향좌(向左)의 보살상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풍만한 상호에 허리에는 매듭이 표현되었고 연화좌를 갖춘. 향우(向右)의 보살상은 소발에 양감이 두드러진 상호를 갖춘.
- 문수사지 맷돌자국 / 맷돌 / 자연석에 새긴 것으로 지름 44cm. 중앙에 원형의 구멍이 설치되어 있음.

5. 백련사(白蓮寺)

[輿地圖書 龍仁 寺刹 白蓮菴]

- 在縣東十五里
- 현의 동쪽 15리에 있다.

[伽藍考 龍仁 白蓮寺]

- 縣東十五里
- 현 동쪽 15리이다.

[白蓮寺略史]¹⁾

- 郡名龍仁山名香秀菴號白蓮國王崇拜茲蒙愛恤之澤新羅哀莊王貳年三月五日名僧愼應禪師比菴初立高麗末洪武二十二年己巳二月九日高僧泉公重修我祖壬申四月十五日無學王師十八羅漢像造成比菴重修崇禎紀元四十四年辛亥六月七日琇璟大師重修寺山局東越嶺下谷西越嶺下谷南路比越嶺盡爲定界釋徒之衆聯絡崇禎凡藏史畧火中消失可以無考棟樑畫壁風雨瀟掃幾已□二□官公修葺以東僅僅得有至於乾隆五十六年四月二日將廢菴極力重修凡有畧

1) 『畿內寺院誌』에서 전재하였다.

史更葺異抄也

○ 군(郡)의 이름은 용인(龍仁)이요 산(山)의 이름은 향수(香秀)인데 암자(菴子)는 백련(白蓮)이라 한다. 국왕이 이곳의 어리석은 백성을 구제하는 음택을 숭배하였다. 신라 애장왕 2년(801) 3월 5일에 명승(名僧)인 신응선사(愼應禪師)가 이 암자를 처음으로 세웠다. 고려 말 홍무 22년(1389) 기사 2월 9일에 고승(高僧)인 천공(泉公)이 중수하였다. 우리 태조(太祖) 임신 4월 15일 무학왕사(無學王師)가 18나한상을 조성하고 이 암자를 중수하였다. 순정기원 44년(1671) 신해 6월 7일 수정대사(瑈璟大師)가 중수하였다. 사찰의 산 경계는 동쪽 고개를 넘어 아래 계곡에 이르며, 서쪽 고개를 넘어 아래 계곡까지이며 남쪽은 길에 이르는 곳과 북으로는 고개를 넘어까지로 경계를 정하였다. 스님들과 대중이 서로 연락하고 높이 받들던 궤장(几藏)과 사략(史略)이 불이 나서 없어져 더 이상 알 수가 없다. 기둥과 들보와 벽화 등은 비와 바람에 깎이고 씻기운 지 그 얼마이던가. 몇 동 남은 요사를 이리저리 수리하여 근근이 유지하다가 장차 폐할 지경에 이른 것을 건륭 56년(1791) 4월 2일 힘을 다하여 중수하고 이에 약사(略史)를 초하노라.

[梵字攷 龍仁 寺刹 白蓮菴]

- 在禪長山
- 선장산에 있다.

[太古寺法 白蓮庵]

- 在蒲谷面秀山大本山龍珠寺末寺
- 포곡면 수산에 있다. 대본산 용주사의 말사이다.

■ 유적·유물

- 백련사 / 용인시 포곡면 가실리 산12 / 사찰 / 신라 애장왕 2년(801) 신응선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함. 많은 기와편과 도자편이 산재하여 중수를 거듭한 것으로 보이고 1980년대 중수하여 현재에 이름. 나한상 11구가 있는데 원래 18구가 있었다고 함. 신증탱(1869) 소장.
- 백련사 대웅전(大雄殿) / 조선 / 건조물 / 정면 3칸, 측면 2칸의 홑처마에 팔작지붕. 19세기 말 건물로 추정.
- 백련사 석조여래좌상(石造如來坐像) / 고려 / 불상 / 높이 66cm, 무릎폭 55cm. 오른쪽 팔이 결실되었으며 결가부좌하고 향마촉지인의 수인을 결함. 고려말기로 추정.
- 백련사 대웅전 오존상(五尊像) / 조선 / 불상 / 주존불(主尊佛)은 높이 66cm, 무릎폭 40cm. 좌우로 나한상이 배치됨. 주존불은 돌로 만든 상에 회칠을 하였고 통견의를 갖춘 좌상.
- 백련사 18나한상(十八羅漢像) / 조선 / 불상 / 16나한상에, 주존불의 협시로 제작된

아난존자(阿難尊者)와 가섭존자(迦葉尊者)를 합한 18존자임. 아난과 가섭은 32.5cm와 34.5cm이고 다른 상은 25cm 내외임.

- 백련사 부도와 비(浮屠・碑) / 조선 / 부도・비 / 사찰영역에서 100m 떨어진 지점에 위치. 조선후기에 많이 보이는 석종형 부도. 비의 정면에는 ‘琇璟堂道元大師’라 음각, 측면에 ‘崇禎紀元後五十年’이라고 음각되어 1678년으로 추정.

6. 보해암(普海庵)

[新增東國輿地勝覽 卷8 陽智 佛宇 普海庵]

- 在定水山
- 정수산에 있다.

[梵宇攷 陽智 寺刹 普海菴]

- 在定水山
- 정수산에 있다.

7. 불당사(佛堂寺)

[寺塔古蹟攷 佛堂寺]

- 古址在龍仁郡遠三面杜倉里礎石數個殘存
- 옛 터가 용인군 원삼면 두창리에 있다. 초석 여러 개가 남아 있다.

■ 유적・유물

- 불당사지 / 용인시 원삼면 두창4리 불당골 / 사지 / 축대의 일부분, 기와와 토기조각이 있었으나 두창저수지에 수몰됨.
- 두창리 삼층석탑(杜倉里三層石塔) / 용인시 원삼면 두창리 1447-2 주내 / 향토유적 19 / 탑 / 높이 약 200cm. 불당골 사지에 있는 석탑. 원래 삼층석탑이었으나 현재는 2층만 남아 있음.

8. 비봉사(飛鳳寺)

[梵字攷 龍仁 寺刹 飛鳳寺]

- 在棲鳳山
- 서봉산에 있다.

9. 서봉사(瑞峰寺)

[瑞峯寺玄悟國師碑]²⁾

- 贈諡玄悟國師碑銘

高麗國大華嚴浮石寺住持贈諡玄悟國師碑銘并序

朝散大夫左散騎常侍翰林學士寶文閣學士知制誥兼太子賓客賜紫金魚袋臣李知命□□□

入內侍文林郎將作小監國學直講充史館修撰官兼太子中允賜紫金魚袋臣柳公權□□□

蓋聞佛之道難成言之使人悲酸愁苦其始學也棄絕骨肉入山林衣麻布自身口意莫不有禁戒茹
 若含辛精修□□□□□□□□□□皆非□蓋人情好逸樂而惡辛勤也何況王□子弟生
 於富貴嗜欲玩好日陳於前而沉迷荒惑至死不悟滔滔皆是迺□□□□□□□□□誰□
 □百無焉可不嘆哉唯我國師憫此批糖芻豢涕唾爵祿脫屣不顧厭煩求寂樂善無猷出於天性以
 謂□□□□□□□□□□浮漚不知幻身實因諸佛□於是性乃說華嚴色空泯寄理事
 □明磨鏡露光光由中出焦模見像像匪外□□□□□□□□□□一□□誠求正覺
 莫如同教乃歸心服膺終始不忘可不謂希有者乎師諱宗璘字重之俗姓王氏帶方公□□□□
 □□□□□□主□□不□□□器宇宏深與群兒異焉每見浮圖繪像輒□于仰面而禮敬至
 於飲食少有薰腥氣則風疹遍身□□□□□□□□□為塵網所□□於斯可見矣年甫十三
 教□院□請度為沙門仁廟嘗恐大覺餘風無人得嗣及是欣然命圓明感□□□□□□□□□
 示時因自日□喜文字年當十五就佛日寺受戒乃辛酉十二月也仁廟常於內道場請□師講論日
 具聽之不倦皇統□□□□□□□□□□□□於毅宗元年丙寅下批為首座歷住歸信國
 泰重□浮石等寺然方大蕭然無十金之儲晏如也蔚為宗室軌□□□□□□□□□□□□
 師早蘊道德為一代雅望迺操為僧統皇統七年丁卯二月迎入于大內遂命師手削大弟頂髮禮儀
 之盛古無與□□□□□□□□□□□□以師主□焉歲在庚寅今上踐祚復加佐世之號辛卯
 年秋召至內殿賜滿繡袈裟一領至冬百座會俾師□□□□□□□□□□月少不豫門人請□
 師曰□之□□矣□未□呼醫巫泊□□□六月二十九日病革迺以手指日沒處倏然而化顏色不
 變手足屈伸□□□□□□□京東南□法寺上聞之震悼輟朝三日使近臣致祭於七月十六日
 遣殿中少監任忠質尙書戶部員外郎崔光裕內侍含慶殿錄事□□□□□國師贈諡曰玄悟是

2) 李智冠,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3,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6.에서 전재하였다.

月十七日茶毗于東林山麓是年十一月歸厝于長湍縣大倬山也比葬五色氣如虹行隨柩車見者咸驚異之自□□□□□骨皆□□□□之春秋五十三臘三十九師天資謙謹以儉約檢身不求贏餘喜慍不形於色好善忘勢雖至廝養莫不待之以厚焉臣嘗聞之傳□富與貴是人之所欲也不以其道得之不處也又日不義而富且貴於我如浮雲師以宿德秩高於僧統則以道處貴也儉約不求盈餘則耻不義之富也以貴下賤則恭而有禮也豈古所謂篤行君子耶且至人遊乎天地之一氣以生爲附贅懸疣以死爲決疣潰癰則雖化而爲鷄爲蟬爲鼠肝爲蟲臂亦何戀哉所以師之於疾病視死生爲一體不禱不鑿□順而歸□則知師之存心異乎人之存心也歟門人具狀以聞曰吾師之骨已赴宅垂宜有以誌之敢以誠請上命臣知命銘之臣無它技粗巨文字立身无可□□□□以辭乃據門人所錄強序而銘曰

十方世界華藏垢塵師之游戲如海之鱗一去一來體道之眞大空之心萬像之身濯濯水月英英花春刮風忽起兮身□一落情雲散盡兮心月孤輪既已能福利三韓兮風恬浪靜於一國又烏知却向他方兮布慈雲甘露而行化如神鏤永琢雪功跡略陳流芳萬古久而彌新

大定二十五年乙巳二月日門人等奉宣瑞峯寺立石興王寺大師敏求刊字

○ 증시현오국사탑비명(贈諡玄悟國師碑銘)

고려국 대화엄 부석사 주지 증시현오국사 비명 병서(高麗國大華嚴浮石寺住持贈諡玄悟國師碑銘并序)

조산대부 좌산기상시 한림학사 보문각학사 지제고 겸 태자빈객(朝散大夫左散騎常侍翰林學士寶文閣學士知制誥兼太子賓客)에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받은 신 이지명(李知命)이 왕명을 받들어 비문을 짓고

입내시 문림랑 장작소감 국학직강 충사관수찬관 겸 태자중윤(入內侍文林郎將作少監國學直講充史館修撰官兼太子中允)에 자금어대를 하사받은 신 유공권(柳公權)은 조칙(詔勅)에 의하여 비문을 쓰다.

대개 듣건대 부처님의 도를 성취하여 어려움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를 듣는 사람들이 현해상(懸解想)을 일으켜 비수(悲愁)에 빠질 수가 있다. 누구나 그를 배우기를 시작하면 골육(骨肉)을 던져 버리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 삼베 옷을 입고, 스스로 신(身)·구(口)·의(意)를 금계(禁戒)하지 아니함이 없다. 쓴 것을 먹으며, 매운 것을 머금고<온 신고와 고초를 겪으며 각고정진한다는 뜻> 정미롭게 (마멸) 닭아 모두가 (마멸) 아니다. 대개 사람들의 상정(常情)은 일락(逸樂)을 좋아하고, 행동을 싫어함이거늘, 어찌 하물며 왕가의 자제로서 부귀한 신분으로 태어나 기욕(嗜欲)과 완호(玩好)들이 날마다 목전에 진열되어 그 에 빠지고 유혹되어 죽음에 이르러서도 깨닫지 못하고, 도도히 생사의 물결을 따라 흘러 감에 있어서이라! 이러한 것은 모두 (마멸) 수(誰) (마멸) 백무(百無). 어찌 가히 탄식하지 아니하겠는가?

오직 우리 국사 스님께서 이와 같은 비당<枇糖, 쭉정이나 겨, 빈잡한 일, 복잡한 일>과 추환<芻豢, 풀을 먹는 畜類와 곡식을 먹는 畜生>을 불쌍히 여겨 부귀와 벼슬을 콧물과 침처럼 천시하여 마치 현신을 버리듯 영원히 돌아보지 아니하고, 번거로움을 싫어하고

고요한 곳을 좋아하며, 선행을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품성으로서 위(謂) (마멸) 물 위에 뜬 거품과 같아서 환신(幻身)이 실로 제불(諸佛)의 법신(法身)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진성(眞性) 중에서 설법하시어 화엄의 색과 공이 민멸(泯滅)함과 이(理)와 사(事)를 함께 밝혔다. 거울을 갈아 광명이 드러남에 있어 그 광명이 거울속으로부터 나오며, 모형을 태우고 불상이 나타나는데, 그 불상이 모형 밖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다. (마멸) 일(一) (마멸) 진실로 정각(正覺)을 구함에는 동교<同敎, 화엄종에서 말하는 同敎一乘의 약칭> 교리만한 것이 없다. 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복옹(服膺)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희유(希有)하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스님의 휘는 종린(宗璘)이요, 자는 중지(重之)이며 속성은 왕씨이다. 대방공(帶方公) (마멸) 주(主) (마멸) 불(不) (마멸) 기우<器宇, 마음의 그릇, 인품의 도량>가 굉심(宏深)하여 다른 아이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항상 부도와 불상을 볼 때마다 문득 불면(佛面)을 쳐다보고 공손히 예경(禮敬)하였으며, 심지어 음식에 조금이라도 누린내와 비린 냄새가 풍기면 두드러기가 온 몸에 나타났다. (마멸) 진강(塵綱)에 얽매인 바가 되지 않았음을 (마멸) 여기에서 가히 엿볼 수 있겠다. 나이 겨우 13살 때, 교(敎) (마멸) 원(院)에서 간청하여 득도(得度)하고 법문(法門, 출가하여 수도하는 이의 총칭)이 되었다. 인묘<仁廟, 고려 인종>께서 일찍부터 대각(大覺)의 여풍(餘風)을 계승 발전시킬 사람이 없을까 염려하다가, 이 때에 이르러 기꺼이 원명국사(圓明國師)에게 명하여 (마멸) 시시(示時, 인자일(因自日) (마멸) 희문자(喜文字). 15살 때, 불일사(佛日寺)에 나아가서 비구계(比丘戒)를 받았으니, 신유년(1141) 12월이었다. 인묘께서 항상 궁내의 도량에 국사를 청하여 강론하였는데, 청중이 날마다 경청하고 조금도 게을리하는 이가 없었다.

황통(皇統) (마멸) 의종(毅宗) 원년(1146) 병인에 비서<批書, 신하가 상주한 狀啓 끝에 임금이 스스로 勅答을 쓰는 것>를 내려 수좌(首座)로 진급하였다. 그 후 귀신(歸信)·국태(國泰)·중흥(重興)·부석사(浮石寺) 등을 차례로 주지(住持)하였다. 그러나 방장실(方丈室)은 소연(蕭然)하게 텅비어 십전 값어치의 저축물도 없었다. 항상 안여(晏如)하여 율창한 종실<宗室, 큰 스님>이 되어 궤(軌) (마멸) 스님께서는 일찍부터 도덕을 쌓아 일대에 걸쳐 사부대중의 아망(雅望)의 대상이었으므로, 이에 배명(拜命)하여 승통으로 추대하였다.

황통 7년(1147) 정묘 2월에 대내<大內, 궁궐>로 영입하여 드디어 스님에게 명하여 손수 대제(大弟)의 머리를 깎아주도록 하였으니, 예의의 극성스러움이 자고로 비길 데가 없었다. (마멸) 스님으로써 주관하도록 하였다. 경인년(1170)에 이르러 지금의 명종 임금께서 즉위하여 다시 좌세(佐世)란 호를 첨가하였다. 신묘년(1171) 가을에 내전으로 초빙하여 만수가사(滿繡袈裟) 한바탕을 하사하였다. 그 해 겨울에 이르러 백고좌회(百高座會)를 열고, 스님으로 하여금 (마멸) 월(月)에 조금 몸이 불편하므로 문인이 의사를 청하니, 스님께서 이르되 (마멸) 지(之) (마멸) 의(矣) (마멸) 미(未) 의사를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6월 29일 병이 매우 심하여지므로 스님은 손으로 일몰처(日沒處)를 가리키면서 숙연히

입적(入寂)하였다. 안색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으며, 수족의 굴신(屈伸)도 생전과 같았다. (마멸) 개경 동남쪽 귀법사(歸法寺)에 유해를 임시 안장하였다. 임금께서 부음을 들으시고 크게 진도(震悼)하여 3일 동안 철조(輟朝)하고 근신으로 하여금 장사와 49재를 지내도록 하였다. 7월 16일 전중소감 임충질(殿中少監任忠質)과 상서호부원외랑 최광유(尙書戶部員外郎崔光裕)와 내시 함경전록사(內侍舍慶殿錄事) (마멸) 등을 보내어 (마멸) 국사로 책봉하되, 시호를 현오(玄悟)라고 추증하였다. 그리고 이 달 17일 동림산 기슭에서 다비하고, 이 해 11월에 장단현 대탁산(大倬山)에 안조(安厝)하였다. 장사하는 날에 하늘로 뻗은 오색 기운이 무지개와 같아서 영구차를 따라 갔으니, 보는 사람들이 모두 그 비상함을 경탄하였다. 자(自) (마멸) 골(骨) 개(皆) (마멸) 춘추는 53세이요, 법랍은 39였다.

스님은 천성이 겸근(謙謹)하여 검소와 절약으로 몸을 단속하고, 생활에 풍요로움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기껍거나 불쾌함을 얼굴 표정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며, 선행을 좋아하고 권세에 아부하지 않았다. 비록 지극히 사양<廝養, 賤婢>한 일을 하는 일꾼, 땀나뭇물 하거나 馬·牛를 이끄는 마부>한 사람이라도 후덕하게 상대하지 않음이 없었다. 신(臣)이 일찍이 문지전(聞之傳) (마멸) 부귀는 사람들이 구하고자 하는 바이나, 도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면 취할 것이 아니다. 또 이르기를, “불의하게 얻는 부귀는 나에게 있어 마치 부운(浮雲)과 같다”라고 하였다. 스님은 도덕의 아망(雅望)에 따라 높이 승통에 추대되었으니 이는 도덕으로써 귀하게 여겨진 것이다. 항상 검약하여 가득히 채워 충족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은 즉 불의의 부를 부끄럽게 여긴 것이다. 존귀한 위치에서 스스로 하천하게 처신함은 공손하고 예의가 있기 때문이니, 어찌 옛 사람이 말하는 독행군자(篤行君子)가 아니겠는가? 또 지인<至人, 도를 닦아 지극한 경지에 달한 사람>이 천지의 일기에 유희(遊戱)하여 살아 있는 것을 마치 붙어 있는 군더더기와 매달려 있는 흑으로 여기며, 또한 죽음으로써 흑을 자르고 등창을 도려내는 것으로 여겼으니, 비록 변화하여 닭이 되고 매미가 되며, 서간(鼠肝)도 되고, 충비<蟲臂, 모두 하찮은 것에 비유하는 말>도 되니, 또한 무엇을 그리워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스님께서는 질병에 대하여 사와 생을 보되, 동일체로 여겨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치료하지도 아니하여 (마멸) 조용히 입적 (마멸) 하였으니, 곧 스님의 마음가짐이 일반인들의 마음가짐보다 특이함을 알 수 있다. 문인들이 행장을 갖추어 임금께 건의하기를, “우리 스님의 유골이 이미 음택에 나아갔으니, 하조(下詔)하시어 행적비를 세울 수 있도록 감히 성청(誠請)하옵니다”라 하였다. 그리하여 임금께서 신(臣) 지명(知命)에게 명하여 비명을 지으라 하였으나, 신은 별다른 재주가 없고, 대강 문자를 조금 알 뿐이어서 굳이 (마멸) 사양하였으나, 마지 못하여 문인이 기록한 행장에 의거하여 억지로 서술하고 명(銘)하여 이르되

시방세계(十方世界) 화엄찰해(華嚴刹海) 어느 곳이든
진진찰찰(塵塵刹刹) 미진국토(微塵國土) 두루 다하여

자재하게 윤회하신 스님의 경지
 넓고 넓은 바다 속의 비늘과 같네!
 열반세계 가고 옴이 돌이 아니고
 터득하신 진여세계(眞如世界) 무하유(無何有)일세
 이름없고 모양없는 공(空)같은 마음
 두두물물(頭頭物物) 삼라만상 몸아님 없네!
 휘황찬란 그 광명(光明)은 수월(水月)과 같고
 아름다운 그 향기는 춘화(春花)와 같네
 괴겁(壞劫) 때가 이르러서 겁풍(劫風)이 부니
 귀중하던 그 신체는 간 곳이 없네!
 무명(無名)구름 사라진 후 맑은 하늘에
 마음달이 온 세계를 비추는구나!
 스님께서는 삼한국(三韓國)을 보호하시어
 전쟁바람 사라지고 태평이 되다
 어찌하여 탄 곳으로 가시렵니까?
 자비구름 널리 덮여 감로(甘露)를 뿌려
 행원(行願)따라 교화함이 신(神)과 같을세
 빙설(冰雪)에다 글 새기듯 힘을 다하다
 위대하신 스님 행적 간략히 적어
 천만년 지나도록 길이 전하여
 지날수록 더욱 더욱 새로워지다

대정(大定) 25년(1185) 을사 2월에 문인(門人) 등이 왕명을 받들어 서봉사(瑞峯寺)에 비를 세우고

홍왕사 대사 민구(興王寺大師敏求)는 글을 새기다.

[太宗實錄 卷14 7年(1407) 12月 2日(辛巳)]

○ 수원 창성사(彰聖寺) 참조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0 龍仁 佛宇 瑞峰寺]

○ 在光教山寺有高麗李知命所撰玄悟國師碑

○ 광교산에 있다. 절에 고려 이지명이 지은 현오국사비(玄悟國師碑)가 있다.

[梵字攷 龍仁 寺刹 瑞峯寺]

- 俱在光教山有玄悟國師碑高麗李知命撰柳公權書金大定二十五年立
- 모두 광교산에 있다. 고려 이지명이 짓고, 유권공이 쓰고, 금(金) 대정(大定) 25년(1185)에 세운 현오국사비가 있다.

■ 유적·유물

- 서봉사지 /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산111 / 사지 / 고려 때 현오국사(玄悟國師)가 주석했다고 하며 1407년(태종 7)에 천태종의 자복사찰(資福寺刹)이 됨.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폐허가 됨. 1979년 서봉사(瑞峯寺)의 명문와편이 발견되었다고 전함. 현재 사지에는 석축과 기와편, 현오국사비가 남아 있음..
-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玄悟國師塔碑) / 보물 9 / 1185(고려 명종 15) / 비 / 비신 높이 188cm, 너비 97cm. 비신은 상변 좌우를 귀접이 하였고 중간 부분이 구열되었으며 장방형의 지대석도 4면을 귀접이 함. 글자는 마모가 심하여 완전히 판독하기 어려움.

10. 선장사(禪長寺)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0 龍仁 佛宇 禪長寺]

- 在禪長山
- 선장산에 있다.

[梵字攷 龍仁 寺刹 禪長寺]

- 在禪長山今廢
- 선장산에 있다. 지금은 폐사되었다.

[寺塔古蹟攷 禪長寺]

- 古址在龍仁郡蒲谷面新院里數條石垣外無他遺物
- 옛터가 용인군 포곡면 신원리에 있다. 여러 조의 석렬이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유물은 없다.

■ 유적·유물

- 선장사지 / 용인시 포곡면 신원리 산40 / 사지 / 조선 태조의 사위 이제(李濟)의 원찰로 창건되었다고 전함. 사지에는 거대한 석축과 맷돌, 기와편과 자기편이 남아 있

음.

11. 성불사(成佛寺)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0 龍仁 佛宇 成佛寺]

○ 在光教山

○ 광교산에 있다.

[梵字攷 龍仁 寺刹 成佛寺]

○ 今廢

○ 지금은 폐사되었다.

12. 신림사(神林寺)

[新增東國輿地勝覽 卷8 陽智 佛宇 神林寺]

○ 在神花山

○ 신화산에 있다.

13. 쌍영사(雙嶺寺)

[新增東國輿地勝覽 卷8 陽智 佛宇 雙嶺寺]

○ 在聖輪山

○ 성륜산에 있다.

[梵字攷 陽智 寺刹 雙嶺寺]

○ 在聖輪山今廢

○ 성륜산에 있다. 지금은 폐사되었다.

14. 안양사(安養寺)

[輿地圖書 陽智 寺刹 安養寺]

- 在定水山
- 정수산에 있다.

[伽藍考 陽智 安養寺]

- 在定水山縣北二里
- 정수산 현 북쪽 2리에 있다.

[梵字攷 陽智 寺刹 安養寺]

- 在定水山今廢
- 정수산에 있다. 지금은 폐사되었다.

[寺塔古蹟攷 安養寺]

- 古址在龍仁郡內四面貢稅里石垣數條殘存
- 옛 터가 용인군 내사면 공세리에 있다. 석렬 여러 조가 남아 있다.

■ 유적·유물

- 안양사지 / 용인시 기흥읍 공세리 264 / 사지 / 초창은 정확히 알 수 없음. 현재 석탑 1기, 석불 2구, 석등하대석 등이 남아 있음.
- 공세리 오층석탑(貢稅里五層石塔) / 문화재자료 42 / 고려 / 석탑 / 높이 250cm. 탑신석의 각 면에 우주가 모각되었고 초층 탑신이 다른 층에 비해 높게 조성되었으며, 2층에서 5층까지의 체감율이 매우 완만. 기단부 2매의 판석 결실.
- 공세리 석조여래좌상(貢稅里石造如來坐像) / 고려 / 불상 / 높이 70cm, 무릎폭은 60cm로 두부는 결실. 통견의를 갖추었고 왼쪽 어깨에서 반전. 향마촉지인을 결하고 있고 하체에 층단식 주름이 형성. 고려말기로 추정.

15. 용덕사(龍德寺)

[太古寺法 龍德寺]

- 在龍仁郡二東面聖輪山大本寺龍珠寺末寺
- 용인군 이동면 성륜산에 있다. 대본산 용주사의 말사이다.

■ 유적·유물

- 용덕사 / 용인시 이동면 묵리 산58 / 사찰 / 신라 문성왕때 염거선사(廉居禪師)가 초창한 사찰이라 전함. 일명 굴암절이라 하고 경문왕 때 도선(道詵)이 삼층석탑 1기와 보살상·나한상·철인상을 조성하면서 중창했다고 전함. 8m 정도의 석축 및 석굴 등이 남아 있음.
- 용덕사 석탑재(石塔材) / 탑 / 높이 151cm. 여러 부재들을 질서정연하게 쌓아 올림. 옥신, 옥개석, 갑석은 고려시대에서 보이는 특징을 보임.
- 천리 석조여래입상(泉里石造如來立像) / 불상 / 높이 200cm, 가슴폭 64cm. 원래 저수지 입구(이동면 천리)에 있던 것을 이곳으로 이전. 통견의 법의에 U자형 주름이 하체까지 이어지며 시무외여원인을 결하였으나 손목 주위가 파손.
- 용덕사 극락전(極樂殿) / 조선 / 건조물 / 조선말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내부에 간 결한 형태의 단집을 구성.
- 용덕사 보살상(菩薩像) / 여말선초 / 불상 / 높이 50cm, 무릎폭 26cm. 머리와 오른손이 결실되었고 반가사유 의 자세에 승각기 매듭과 영락장식을 조식.
- 용덕사 지장상(地藏像) / 고려 / 불상 / 높이 43cm, 무릎폭 28cm, 머리높이 15.5cm. 빈 머리 소발에 왼손에 정병을 든 모습으로 의습표현은 고려시대의 특징을 보임.
- 용덕사 나한상(羅漢像) / 불상 / 30cm 이내. 두부가 결실되었고 철이 두꺼워 원형을 알기 힘들. 모두 좌상으로 앞면은 양각이 두드러지고 뒷면은 단순하게 음각처리. 여말선초로 추정.

16. 용암사(龍巖寺)

[新增東國輿地勝覽 卷8 陽智 佛宇 龍巖寺]

- 在九峯山
- 구봉산에 있다.

[梵宇攷 陽智 寺刹 龍巖寺]

- 在九峯山今廢
- 구봉산에 있다. 지금은 폐사되었다.

17. 조천사(朝天寺)

[太古寺法 朝天寺]

- 在龍仁郡外四面鎮南山大本寺龍珠寺末寺
- 용인군 외사면 진남산에 있다. 대본산 용주사의 말사이다.

■ 유적·유물

- 조천사 / 용인군 백암면 장평리 / 1732년 심씨(沈氏)가 초창했다고 전하며 1770년 박처사(朴處士)가 관음전(觀音殿)을 짓고 신암사(神岩寺)라 함. 그후 1796년에 이름을 바꾸고 1974년에 중건하여 오늘에 이름.

18. 향수사(香水寺)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0 龍仁 佛宇 香水寺]

- 在縣東二十里
- 현 동쪽 20리에 있다.

[梵宇攷 龍仁 寺刹 香水寺]

- 在縣東二十里今廢
- 현 동쪽 20리에 있다. 지금은 폐사되었다.

19. 획주사(劃珠寺)

[寺塔古蹟攷 劃珠寺]

- 古址在龍仁邑三面麻北里有石佛石塔佛像高八尺塔五層高八尺
- 옛 터가 용인읍 삼면 마북리에 있다. 석불과 석탑이 있는데 불상은 높이가 8척이고 탑은 오층인데 높이가 8척이다.

II. 발굴 및 지표 조사에 의한 유적

20. 가창리 미륵입상(稼倉里彌勒立像)

■ 유적·유물

- 가창리 미륵입상 / 용인시 백암면 가창리 산72 신창 / 고려 / 불상 / 석주형 불신에 상호의 윤곽선만 두드러지게 조각하였고 형식적인 수인을 배치.

21. 가창리 부도(稼倉里浮屠)

■ 유적·유물

- 가창리 부도 / 용인시 백암면 가창리 산56-2 내창 / 향토유적 23 / 조선 / 부도 / 높이 120cm, 어깨둘레 315cm. 주인을 알 수 없는 석종형의 부도로 상륜부는 연주받침을 두고 보주를 얹은 형식.

22. 고림동사지(古林洞寺址)

■ 유적·유물

- 고림동사지 / 용인시 고림동 단사 / 사지 / 지표상에 석축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와편, 도편 등이 잔재.

23. 금단사지(金丹寺址)

■ 유적·유물

- 금단사지 / 용인시 이동면 어비리 막골 / 사지 /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으로 보이며 1963년 저수지 공사로 수몰됨.

24. 목신리 보살입상(木新里菩薩立像)

■ 유적·유물

- 목신리 보살입상 / 불상 / 용인시 원삼면 목신리 구봉 / 높이 160cm, 가슴폭 84cm.
이마에 화불이 있고 시무외여원인을 결하였으며 하체는 매몰된 상태.

25. 목신리 석조여래입상(木新里石造如來立像)

■ 유적·유물

- 목신리 석조여래입상 / 용인시 원삼면 목신리 7 / 문화재자료 62 / 불상 / 높이 175cm, 가슴폭 70cm, 두께 33cm. 하체일부가 매몰되었고 전체적으로 마모가 심함. 통견의에 가슴에 U자형의 옷주름이 표현되었고 시무외여원인의 수인을 결함.

26. 미평리 약사여래입상(彌坪里藥師如來立像)

■ 유적·유물

- 미평리 약사여래입상 / 용인시 원삼면 미평리 66-4 / 문화재자료 44 / 불상 / 높이 550cm, 두께 50cm, 폭 130cm. 머리에 자연석의 보개를 올리고 통견의를 갖추었으며 U자형의 의습이 전면에 흐름. 왼손에 정병을 들고 있는 용인지역에서 가장 거대한 석불. 연화대는 생략된 채 발 밑에 매몰.

27. 박곡리사지(朴谷里寺址)

■ 유적·유물

- 박곡리사지 / 용인시 백암면 박곡리 / 사지 / 속칭 오방난골(오백나한골)이라고 전함. 사지 전역에 석축, 돌담, 탑의 지대석, 불상의 하대석, 주춧돌, 돌절구, 불상 1구 등이 있으며 백자, 분청편 등이 발견되어 최소한 조선초기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박곡리사지 석불입상(石佛立像) / 불상 / 현재 높이 148cm. 무릎폭 70cm. 쪼그리고 앉아 무릎 위에 팔을 대고 있는 모습으로 수인은 배 앞에 합장을 한 모양의 이질적인 도상을 갖춘.

28. 백봉리사지(栢峰里寺址)

■ 유적·유물

- 백봉리사지 / 용인시 백암면 백봉리 110 / 사지 /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석탑재와 석불좌상이 있었으나 석불좌상은 멸실됨. 사지에는 와편, 주춧돌 등이 잔존.
- 백봉리사지 대좌(臺座) / 대좌 / 높이 60cm의 석불좌상이 있었으나 1984년에 멸실. 가로·세로 46cm의 정방형으로 자연석의 지대석 위에 올려짐. 기단부 옆면에 복련을 조식하였고 전체적으로 하단부보다 상단부가 좁아진 형태.
- 백봉리사지 삼층석탑(三層石塔) / 탑 / 전체 높이 105cm, 대석의 가로, 세로 78cm, 갑석 1개, 옥신석 1개, 옥개석 3개를 모아서 엮은 상태.

29. 양지리사지(陽智里寺址)

■ 유적·유물

- 양지리사지 /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 사지 / 높이 60cm의 석불 1구가 출토되었으며 초석이 산재하였으나 현재는 파괴된 상태.

30. 어비리사지(魚肥里寺址)

■ 유적·유물

- 어비리사지 / 용인시 이동면 어비리 산99 / 사지 / 송전리사지로 알려짐. 절골이라 불림.
- 어비리사지 불상(佛像) / 현재 동도사 대웅전 봉안. 크기 92.5cm, 무릎폭 74cm, 어깨폭 45cm. 석조. 현재는 개금된 상태. 우견편단에 의습선이 왼팔전체와 가슴을 지나 뒷면까지 표현되었고 결가부좌를 갖춘. 오른손은 항마촉지인, 왼손은 지물을 들고 있음.
- 어비리 삼층석탑(三層石塔) / 문화재자료 43 / 고려 / 탑 / 현재 동도사로 이전 복원. 탑신 222cm. 낙수면의 경사가 완만하나 전각의 반전이 예리하여 경쾌한 모습을 갖춘.

31. 용화사지(龍華寺址)

■ 유적·유물

- 용화사지 /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330-1 / 사지 / 곳곳에서 석축이 보이며 추정 건물지에서 와편수습. 사지의 아래쪽으로 석탑과 불상이 있음.
- 마북리 탑재(麻北里塔材) / 탑 / 높이 240cm. 남아 있는 탑의 부재들을 모아 쌓음.
- 용화전 미륵입상(龍華殿彌勒立像) / 불상 / 높이 225cm. 불상형이 아닌 장승형이며 머리에 긴 관모를 썼고 막대와 같은 신체 특징을 보임.